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미술계의  
현장

## 김달진 관장

그는  
누구인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미술계의 현장이자 산실이다. 필자는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이라고 할 만큼 정평이 나 있는 김달진 관장을 서울 홍지동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만났다. 미술인이라면 미술계에서 김달진 석 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월간미술세계 ART WORLD는 아키비스트(Archivist)로서 새로운 가치창조자, 수집의 공유자, 그림 수집에 대한 열정으로 똘친 인간 김달진을 만난 이야기와 그의 삶을 정리해 보았다.



청년 시절 필자에겐, 미술 자료를 수집하고자 도록이 담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인사동 전시장마다 마다 다닌 관장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미술 자료 전문가이다. 현대미술의 역사를 정리하는 기초자료들을 모아 정리하고 미술 자료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김달진은 본래 수집을 좋아하던 충북 옥천 소년이었다. 그가 자신의 평생을 미술 자료수집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그는 여전히 미술 관련 전시가 있는 장소라면 서슴없이 달려간다. 그를 아키비스트(Archivist),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 미술계 114와 같이 다양한 별명을 지녔다. 필자는 그와의 대담을 통해 가장 먼저 느낀 점은 한마디로 김달진이 지닌 자료수집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한국 근·현대미술사 자료의 보고(寶庫)까지 만들었다는 느낌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우표, 껌상표, 잡지 등 그냥 모으기 시작하였고 그에겐 수집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다. 그러다 미술 관련 도서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싶어 시작한 것이 지금 미술자료박물관까지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각 분야에서 나름 성공한 이유를 권력과 영향력, 돈과 인기를 성공의 중요한 잣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의 경우는 돈의 유무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삶 자체를 원했고, 지금 하는 일에 내가 즐겁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오래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에 봉착하고, 난관이 생기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다. 하지만 그에겐 최소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에 지금 이순간도 행복을 느끼며 즐겁고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이다.

김달진 삶을 돌아보면, 그는 지난 50여 년간 수집해 온 사료적 가치가 큰 기록물을 수집, 분류, 보존, 연구하기 위해 2008년 3월 개관한 곳이 바로 국내 최초의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다. 박물관이 설립되기까지 김달진은 1978년 월간《전시계》에서 첫 직장을 시작으로, 1981년 이경성 국립현대미술관장 시절은 일당 4,500원의 임시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14년 5개월간 근무하였다. 그 후 1996년부터는 가나미술연구소 자료실장, 가나아트닷컴 총괄팀장의 일을 맡아 하면서 미술잡지 《가나아트》에 참여하고, 미술 컨설팅도 하면서, 자료실

운영, 미술저작권 사업, 《화랑·미술관 전시회 가이드》를 만들었다. 이 가이드는 격월간지로 화랑 및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관련 상황을 쉽게 접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가나아트센터에서의 5년 10개월 생활을 마감하고 김달진은 독립했다.

가나아트로 자리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 김달진은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큐레이터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미술관의 개선되지 않는 대우에 좌절감을 키웠다. 게다가 당시 둘째 아이가 아파 약값이 더 필요한 상황에 월급도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김달진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나와 잡지, 화랑, 사립미술관 등지에 관심을 가져오다 가나미술문화연구소 자료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나아트센터에서 독립한 김달진은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개소했다. 드디어 김달진은 어려서부터 시작한 모으기라는 취미 활동이 김달진 이름을 건 연구소로 세상에 선을 보였다. 김달진미술연구소는 국내 미술 정보의 체계적인 자료수



집과 연구를 위해 노력해왔고 가나화랑에서 발행하던 《서울전시회가이드》를 보완하여 정기간행물로 등록 후 지금의《서울아트가이드》를 펴낸다. 또한 미술종합포털 달진닷컴(www.daljin.com)은 서울아트가이드의 확장 영역으로 미술 정보 웹 사이트로서 동시대 미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1995년 김달진은 미술 원고들을 정리하여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적이 있다. 이경성 관장의 말을 요약하자면 “국립현대미술관의 김달진 하면 나보다도 우리 미술계를 더욱 잘 아는 존재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미술관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인재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달진처럼 자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해야 한다”고 평했다. 김달진 그의 집념은 국내의 미술의 흔적을 묵묵히 대변한다. 보통 열심히 그림 그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는 소홀이 하면서 남의 약점 잡기 바쁘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가시밭길 같은 미술 자료를 집대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개인 일이 아니다. 미술 자료의 집성은 결국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 김달진이 되었다. 이젠 우리 미술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미술 자료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방대한 미술계 정보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술 정보는 시간적 추이와 새로움을 찾는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미술 사조와 세계 미술계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 꼭 미술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미술 정보를 미술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공하고 있는 장본인이 김달진이다.

김달진은 오랜 시간 한국미술 아카이빙에 전념해 왔다. 2024년은 그의 궤적을 알리고 한국 근·현대미술사 자료의 보고(寶庫)로 우뚝 선 김달진관장의 미술 자료수집 외길 인생을 김재희가 《김달진, 한국 미술 아키비스트》로 발간하였다. 미술 자료수집에 온 정성을 다한 김달진의 삶을 그려낸 책이다. 필자 생각엔 김달진은 한국의 미술 아키비스트(archivist)다. 그의 의지와 집념으로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왔고 평생을 바쳐 미술역사의 기록과 발전을 위해 살아왔고 이를 성취했다. 2023년 한국박물관협회가 추천하여 박물관 미술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으로 “수집과 공유”의 그 가치를 증명받았다.



동시대 미술계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세계의 미술관, 화랑, 작가, 경매, 전시회, 미술 관련 이벤트 등 수많은 정보를 얻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추세다. 이에 미술관, 화랑 및 작가들은 미술 사이트를 만들고 업체까지 가세해 열풍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 중에 김달진은 “자료를 모으는 것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이젠 정부도 미술 자료 보전에 대한 관심과 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의 자료시설을 이어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자료수집도 물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미술시장과 미술 애호가들의 증가에 따라 작가, 전시회, 전시 공간, 관람객 등 미술 관련 정보의 양은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젠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가치 있는 자료에 대한 선별, 그리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분류, 정리, 기록, 보존하고 아카이빙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공간 확보, 자료의 DB화를 위한 재원 확보, 소장품의 보존과학처리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김달진은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 잡지를 창간하고 연구소를 만들고 박물관까지 만들었다. 이젠 지속적인 발전이 자료 공간의 확보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베이스, 재

정 등 개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기엔 한계가 보인다. 김달진 열정 하나로 우리나라 미술계를 위해 지금껏 달려왔다. 김달진미술 자료박물관의 재원은 서울아트가이드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운영구조에서 다른 돌파구를 모색하지만 찾지 못하는 아쉬움, 정부에서 많은 미술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카이브 지원사업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추진하는 원로작가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 6,000~8,000만원 지원사업은 일회성이고 업데이트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필자는 언젠가는 김달진 미술 자료박물관이 국립 미술 자료박물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무거운 자료연구소나 박물관이 아닌 김달진 미술 자료가 모태가 되는 자료박물관으로 더불어 일반인이 쉽게 접하는 아카이브(archive), 미술 북카페 개념을 도입한 미술정보센터가 생겨나길 바란다.

그는 미술 아키비스트(archivist)로서 평생을 바쳐 기록을 모으고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해 한국미술에 서사를 부여한 한 사람의 삶을 담아내왔다. 김달진이 하는 일들

은 분명 작가론적인 미술평론가들과도 차이가 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 살고 있고 그는 평생을 바쳐 미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왔다. 필자가 바로 보는 시각은 김달진이 모은 수많은 자료들,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지 않은 자료는 다 죽은 자료가 아니다. 정보는 온라인에 있는 것이 전부 아니다. 이젠 세상도 바뀌었다. 평생 화가란 이름을 달고 살다 죽었던 사람과 강의하는 교수와 분명 느낌을 달리해야 한다. 교수 타이틀로 그럴싸하게 작가마냥 무임승차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정확한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은 김달진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 자신은 일에 대한 취미를 넘어 소명 의식과 목적성을 가지며 살아왔다는 것. 그는 지금도 열정이 식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일흔 나이지만 미술계 메신저, 6년 차 유튜브로 전국에 미술계 현장을 뛰며 소식을 전하고 영상기록도 남긴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가며 쌓아 올린 토대가 최대한 미술사회에 공유되고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